

韓國生藥報

本紙는 新聞倫理綱領 및 實踐要綱을 遵守합니다.

發行人兼 李鍾容
編輯人 張玉煥
印刷人 田根澤
編輯局長 田根澤

發行所 韓國生藥協會
社址 韓國生藥協會
<우편번호130-062>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1140-55(大山빌딩 3층)
☎ 967-8133, 969-6875
FAX : 965-0643
(每月 初日發行)

지면안내

- ◎ 약초 우량품종 육성..... 3면
- ◎ 재배교실..... 4면
- ◎ 작약 오미자 하수오..... 6면
- ◎ 편도선염에..... 8면
- ◎ 세대별 보양 복용법(노인)..... 8면

“약초농사 못짓겠다” 농민 하소연



엑스제 수입증가로 국산약재 바닥세 생산원가도 못미쳐 재배포기 속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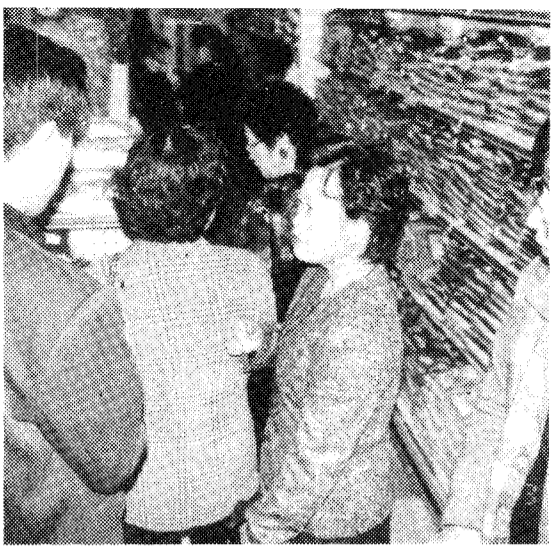
약초재배를 포기하는 농가들이 늘고 있다. 수입개방협약과 엑스제 수입 증가로 불안정한 국내생약농업의 현실이 극심한 경기침체 현상과 맞물려 갈수록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제약사들의 엑스제 수입 의존도가 높으면 서 많이 대폭락한 국내산 약재시세는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규격화 시행 영향으로 때때로 자제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가격 경쟁력이 더욱 떨어진다. 한약업체의 이직인원 불황이 지속될 경우 생약재배농민들의 이농현상 초래는 물론 국내 생약

원료 수입에 차질이 예상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시급히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파종기를 얼마 앞둔 농가들은 엑스제 수입 증가를 찾는 사람들을 예년에 비해 눈에 띄게 늘었다. 전남 벌교읍 정동면씨(60)는 생약협회 전남도지부장은 “시세가 생산원가에도 턱없이 못미친다면 누가 힐끔힐끔 약초 재배를 하려 하겠느냐”며 엑스제 수입증가수

국내산 지황수매문제 가가결정을 못하고 양 단체인(생약협회, 약농협)의 의견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당초 수입수준을 초과한 내산지황 구매조건으로

중요농산물수매지환반입을 제한할 의향이 있다. 또 국산지황을 전량 제조업체인 약농협에 수입지환 전량을 약농에

배정토록 했다. 그러나 신평유자축인 약농협은 국내산지황수매회가로 생산원가에 도 턱없이 못미친 4천 880원(당 4천 880원)을 고수하고 시진했던 생약협회가 지황수매 개량사업이 이처럼 난항을 겪고 있는



심전대보탕 재료와 차 종류 한약재가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있다.

봄맛이 분주

봄기운이 완연하다. 날씨가 풀리면서 겨우내 움추려 있던 한약거리에도 이제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다. 한동안 잠잠하던 국산한약재상설매장도 봄철 보양재를 구입하

기 위한 소비자들의 발걸음으로 분주해졌다. 『작년 가을에 이곳에서 약재를 구입했다 복용해 보니 한제 값으로 네 다섯제 값을 줄 수 있어 경제적이고 국산약재니 만큼 효과도 좋아 다시 찾게 됐다는 소비자 정선희씨(42·도봉구 수유동)는 『올가을이 분주했

이 함께 달여 마실수 있는 심전대보탕 재료와 차 끓이기에는 좋은 약재 몇가지를 더 구입해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설매장 남정화장은 『심전대보탕재료, 영지, 구기자 등 차종류 한약재가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품목이고 그 외에도 홍화씨, 누에가 인기 품목인데 특히 누에는 품귀현상을 빚고 있어 물량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는 전반적으로 예년의 절반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지난해 값이 대폭락한 달궁의 경우 종자 찾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농가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함흥씨(영도도평창군 하진동)는 『이곳진부만 하더라도 당귀수십만원이 재고로 쌓여 있는 상황에서 제약사들의 수입 엑스제 사용이

이외에 국내생산지황구매대책 수위원회는 지난해 22일 회의를 소집하고 보다 현실적이고 공정한 수매가 결정을 위해 재배현장 실사를 벌이기로 했다.

황기 씨앗값
예년 1/3 수준
과종기를 안고 약초종자값이 예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황기 씨앗값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작년의 경우 80원(1가마) 3백50~4백만원까지 하던 황기종자가 올해는 1백50만원이 고작이다. 『지난해 황기작황은 부진했던 반면 씨가 잘 여문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장지홍씨(생약협회 총무 단양군 사부소산)는 『따라서 올해 황기재배면적도 예년보다 다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요즘 농촌에서는 재배할만한 약초가 없다고 하소연입니다”

생약재는 우리 후손들의 후손 그 후손들에게 까지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원입니다
당장의 작은 이익을 위해 더 큰 재산을 포기하시겠습니까
함께사는 내일을 위해 수입엑스제 사용은 자제되어야 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